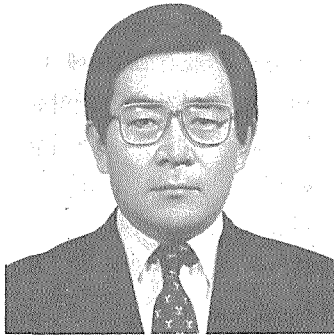


전환기의 석유정책과 석유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



李鳳瑞
(동력자원부장관)

이 글은 지난 11월 17일 대한석유협회 주최로 잠실 롯데 월드에서 열린 제8회 석유세미나에서 李東圭 동력자원부 석유조정관이 대독한 李鳳瑞동력자원부장관의 격려사를 옮긴 것이다.<편집자주>

오늘 대한석유협회가 주관하는 「90년대의 석유산업」 세미나 개최를 맞이하여 李承源 회장님과 석유업계, 그리고 관계전문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와같이 뜻깊은 자리에서 본인이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石油産業은 그간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겪는 등 국내외의 갖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6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급속한 성장, 발전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지금의 안정기조를 이룩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온점에 대하여 에너지분야에 관계하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더불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는 '86년부터 시작된 국제수지 흑자기조의 정착에 따라 선진제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시장개방 및 원화절상 압력등으로 인한 대외적인 어려움 이외에도, 대내적으로는 노사분규, 임금인상 등 많은 난제를 안고 있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함으로써 금년에도 10% 이상의 높은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밝게 해주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성과를 이룩하는데는 우리 石油産業이 큰 몫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석유산업은 급변하는 石油정제하에서도 국내 소요石油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왔으며 보다 저렴한 원유도입으로 금년들어 세차례의 국내油價 인하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油價인하는 물가안정기반을 확충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국제수지의 흑자기조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정부의 低油價정책 추진에 적극 호응하고 협조하여 주신 석유산업 관련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우리 경제역량의 증대와 민주화합의 물결속에서 정치 민주화와 함께 자유경제체제로의 전환 문제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의 에너지政策이 어떻게 변해 왔으며, 요즘 고조되고 있는 개방주의 분위기에서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느껴집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에너지政策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느 분야보다도 정부의 규제가 많은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저도 이런 의견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너지政策을 비판하는 데 있어 개방자체를 척도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수단으로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기본목표가 개방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목표를 정리하면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에너지수급의 안정에 있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가격의 안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政策이 비록 완전한 개방주의 원칙을 근거로 하지 않았으나 하더라도 지금까지 결과에 있어 상당한 성공을 거둔것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에너지분야를 규제해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에너지政策이 국내외의 추이에 불구하고 과거의 기본입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건이 변화된 상황하에서 과거의 정책수단이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이고, 앞으로 개방정책을 채택하여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石油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급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동원한 수단을 물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업의 허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규참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단 석유산업체에 들어온 기업은 다른 경쟁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도록 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적정시설의 투자를 유도하고 그 투자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사고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의 정책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한 것은 수출입의 허가를 통해서

외국 석유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위 소비자정책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石油안정공급을 위해서는 原油를 스스로 정제하여 공급해야 한다는 비산유국의 일반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동원한 수단으로는 석유류에 대한 판매최고가격을 설정하여 부당한 가격상승등을 방지하여 왔으며 또한 국내산업 보호 및 서민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나프타 燈油·輕油의 가격을 저렴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수단이 개방을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어떻게 변경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일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이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原價를 그대로 반영하는 가격체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격이 원가와 괴리되어 산정되는 상황에서는 국내업체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있을 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경쟁속에서는 소위 Free Entry의 도입이 어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우리의 입장에 맞춘 가격구조를 유지하다보면 국제가격 구조와도 전혀 같지 않게 됩니다.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石油製品은 아무도 수입을 하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석유제품은 누구나 다 수입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석유제품의 連産性으로 인하여 한제품이 지나치게 수입이 되지 않거나 또는 지나치게 수입이 된다고 하면, 그 제품만의 시장왜곡 문제가 아니라 정유업체 제품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수입을 개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출입을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가격체제를 최소한 상대적인 가격구조에 있어서 국제교역이 가능한 양상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며, 가격구조의 개선을 이룩하는 데는 여러가지 경제 사회문제등을 고려 상당기간에 걸쳐 단계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해온 石油가격정책과 관련해서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석유가격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에너지가격의 근간이 되어왔고, 그리고 국제유가가 늘 변동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한 국내油價를 안정체제로 유지해 나가려는 생각으로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油價를 책정하는데 있어 原油價 자체가 실토입가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현재 실토입가가 12달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8달러로 책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관세 10%와 석유사업기금이 포함되어 종합적인 Package의 가격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油價가 상당히 인상되더라도 국내油價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국제油價가 18달러까지 인상될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19달러까지 올라가면 관세 10%로 완충이 가능하고, 그리고 23달러까지 올라가더라도 그 동안의 基金을 가지고 약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안정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

니다.

최근의 계속적인 원화절상과 국제 原油價의 일시적 급락하여 石油事業基金이 예기치 않게 지나치게 모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최근의 숫자를 보더라도 배럴당 11달러를 넘는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原油價와 비교할 때 너무나 높은 숫자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다시 말해 국제 원유가가 향후 현재의 수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리고 원화의 절상이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라면 이를 점차 국내 油價인하에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원화의 절상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속도로 이루어진다면 환율과 연동하는 油價체제를 마련하여, 환율의 절상폭을 보면 油價인하의 폭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품의 수출입 자유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리면 가격이 어느 정도 수출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수출입이 자유화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에너지政策의 첫째 목표가 수급의 안정이라고 보고 수급의 안정은 어느 정도 국내의 공급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업체의 도산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기반을 교란시킨다면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우려성이 있다하면 그때는 수출입은 하되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입체의 Free Entry 인정문제입니다. 이 역시 경쟁의 이익이 좀더 저렴한 石油공급으로 귀결될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업체를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시켜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그리고 1대1로 국제경쟁력이 생겼을 때 수출입의 완전한 자유화와 국내업체의 완전한 Free Entry를 인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석유산업 관계자 여러분!

이러한 석유산업 개방화 문제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은 대내외적으로 과거에 겪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石油소비자는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지난 해에 이어 10% 수준의 증가추세를 실현 하였으니, 그 내용에서는 輕質化 추세와 品質향상이 급격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석유산업은 지난 6,70년대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을 근간으로 한 연료유 일변도의 양적 신장시대와는 달리 국민소득 향상과 편익증대로 차량용, 가정용 연료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고급화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질적 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속에서 우리의 석유산업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함에 있어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에너지 고급화의 석유제품의品質향상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향상과 국민편익 증대에 따라 차량이 급증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이 대두되면서 석유제품의品質향상과 가정연료 가스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가스수요는 '70년대 연평균 20% 증가한데 이어 '80대에 들어와서는 26%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향상과 복지사회의 확대는 앞으로도 석유제품의 품질향상과 다양화를 꾸준히 요구할 것이며, 정부는 이에 맞춰 '91년까지 가정연료의 가스 보급률을 50%로 높이며, 유험합량 1%이하의 低硫黃油를 주요도시에 공급하고, 총 휘발유의 80%를 無鉛휘발유로 공급할 계획인 만큼 석유제품의 품질 고급화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石油수요 구조 전환에 따른 효율적인 시설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에 石油를 低價로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투자와 더불어 석유제품 수출입의 탄력적인 활용이 요구되며, 짧은 안목에 따른 무분별한 시설확장과 투자로 정부에 의존적이거나 高價의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셋째로, 불안정한 국제石油시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제석유산업은 상류부분은 물론 하류부분에 있어서도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油田개발과 代替에너지 개발등에도 적극참여하여 개방화, 국제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綜合에너지産業으로의 성장전략을 통한 경영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경제가 지금까지 고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90년대의 석유산업」에 대한 여러분의 토의는 우리 석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고 양질의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원동력으로 하여 우리 경제의 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이 세미나가 석유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대한석유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업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